

21세기의 가정생활과 가정관리

조 영 희 (서원대학교 가족환경학과)

I. 들어가는 말

인간 역사의 발전을 추적해 볼 때 20c는 지난 어느 시기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생활을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화시켜 놓았다. 이런 변화의 연속선상에서 앞으로 다가올 세기에는 여러 미래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최근 2,30년 크게 진전된 기술과 과학의 발달에 기초해서 볼 때 양적 변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질적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예측은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막연한 흥분과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기대와 함께 불안의 요소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맥락에서 선택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생활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가족의 구조나 기능, 가족의 가치와 역할, 가족제도, 가족들이 쓸 수 있는 자원이나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족과 사회단위와의 관계 등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이다.

학문이란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며,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예측하기도 하며, 학문의 성격에 따라서는 변화를 주도하기도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기도 한다. 즉 학문이란 인간의 삶의 현장과 유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학문과 우리의 생활과는 순환적 또는 공생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학문의 출발은 우리의 생활에서 비롯되며 학문적 연구 결과는 곧 피드백 되어 생활의 향상을 유도하게 된다. 특히 실천학문에서 이러한 관계는 필수적이다.

이 점에 있어서 실천학문으로서의 가정관리학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950년대 전문적 학문으로 출발한 이후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에 맞춰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 생활의 변화와 함께 호흡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문적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학문적 영역을 세분하여 전문화함으로써 여타의 학문들과 학문적 깊이에 있어 어깨를 같이 하면서 생활에

접근하는 것으로 학문적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또 다른 하나는 가정학 혹은 가정관리학 계통의 제 분야를 통합하여 실생활에 유용한 학문으로서 자리매김 되고자 하는 것으로 학문적 실용성을 보다 강조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문제는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선택이 학문의 존재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위기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우리는 조만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어느 여타 학문 분야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앞으로 도래하는 새로운 세기에서의 가정생활을 예측해보고, 그에 필요한 가정관리학 분야의 연구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현재의 현재의 가정관리학이 실제 가정생활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탐색하고, 이 문제와 함께 연결지어 앞으로 다가오는 세기의 가정생활에 기초한 가정관리학 분야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현대 가정생활의 특성과 가정관리학 분야의 연구 경향

우리의 가정생활은 1960년대의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근대화라는 과정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했고,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는 사회정책과제가 되었으며, 동시에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가정관리학의 경우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정생활의 제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으며 궁극적으로 가정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즉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맥을 같이 하며 가정관리학도 변천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가정관리학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현대사회의 가정생활을 살펴보고, 거기에 가정관리학은 어떻게 대처했으며,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글에서는 가정생활의 변화의 축을 다음과 같은 네 요소, 즉 핵가족화, 도시화, 소득의 증가, 여성 취업률 증가로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도시로 가족들이 이동하고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의 생활양식은 크게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즉 도시가족과 농촌가족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또한 가족이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관계도 크게 변화되었다. 우선 소수의 가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빈번해지면서 핵가족 내 결속이 강화되는 반면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경제단위로서의 가족의 범위가 핵가족으로 국

한됨에 따라 가족관계도 변하여 과거 한 가족의 범위에 속했던 노인세대가 가족 외의 존재로 외부화 되면서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자녀세대가족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에 남겨진 노인들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경우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정관리학 분야의 연구는 거의 획일적으로 연구대상을 도시의 핵가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농촌가정의 가정생활이라던가 노인가정, 결손가정 등을 외면함으로써 학문적 관심의 영역을 스스로 제한하는 우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노인문제의 해결을 보는 우리의 사회적 인식이 '선가정, 후사회'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을 연구하는 가정관리학에서는 이 노인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어 오지 않다가 최근 고령화 사회의 징후가 보이면서 미약한 수준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다. 농촌가정의 경우도 그렇다. 비록 최근 도시화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농촌가정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농촌가정도 하나의 중요한 가정형태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에 관련되어 연구된 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족(정)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전형적인 도시의 핵가족 구조는 사회노동에 참여하는 임금노동자로서의 남편, 부양가족으로서의 소수의 자녀, 그리고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주부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가족구조 속에서 과거 대가족제도에서 볼 수 없었던, 즉 생산노동에서 배제된 채 자녀양육과 가사노동만을 전담하는 전업주부의 출현은 현대가족의 특성을 규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핵가족은 이 전업주부를 축으로 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의 영향은 의도했든 아니든 단지 그 가족 내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물론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주부'는 연구대상의 핵심에 위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문적 시각을 개별가정의 차원에 국한해서 가정생활의 의미를 두다보니 주부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중요성을 조망하지 못하였고, 그럼에 따라서 가정단위와 사회와의 관계를 충분히 밝히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가족이란 사회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생활의 자립단위로 간주된다. 즉 물질적인 재화의 조달과 사용, 정서적인 유대가 이 단위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이 단위의 결속은 강화되고 동시에 다른 단위들과는 명료하게 경계 지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단위로서 완전자급자족의 상태는 불가능하므로 다양한 형태로 다른 사회 단위들과 상

호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족의 자립 개념은 사회경제적인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현대사회에서 가족들의 생활이 도시생활로 전환되면서 가족의 자립 개념이 달라지게 되었다. 과거의 생활에서는 자립이란 생활에 필요한 수단을 가족들이 직접 생산하여 소비함으로써 이루어졌다면, 이제 도시의 가족들은 생산의 과정에서는 배제되고 주어진 소득으로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함으로써만이 자립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이제 도시의 가정은 더 이상 생산의 단위가 아니며 소비단위로만 강조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여기서 가족자원관리 특히 금전과 시간관리의 평가 준거는 효율성 혹은 합리성이다. 도시가족은 일반적으로 임금 근로자 가족으로 상정되며 이들은 도시생활양식에 의해 삶이 꾸려진다. 이들에게는 주어진 임금소득이 있고 제한된 자유시간이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선택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가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는 가정관리학 연구분야는 효율성, 합리성을 가족자원관리행동의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 왔다. 이때의 효율성은 이미 주어진 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전제로 하여 가족의 자원사용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빈곤층이나 노인의 가정과 같이 자원의 상태가 다른 가정의 형태에서는 어떻게 효율성, 합리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자원의 획득부분이나 부족한 자원의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오지 못했다.

한편 산업화의 빠른 진행은 국민생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수반한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가족들에게 경제적 풍요를 안겨 주었다.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생활의 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가족들의 여가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웠던 우리의 경제형편은 이제 '주말'을 특별한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생활의 편이품인 고가의 내구재를 필수품화 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가족들이 중산층의 삶을 지향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각종 소비자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가정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소득의 증가는 모방소비, 과소비 양상, 소비의 불균형 등의 많은 문제를 낳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정관리학의 어느 분야에서도 '가정철학'의 문제에 다가가고 있지는 않다.

현대사회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는 여성 취업률 증가이다.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이다. 거의 50%에 이르는 취업률은 가정 내부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인구구조가

변화되면서 1차 노동력이 고갈됨에 따라 가정의 유희 노동력 사용은 불가피해졌다. 이와 함께 여성의 교육수준도 많이 향상되어 생산자원으로서 충분히 기능하기에 이르렀으며 사회적인 가치의 변화가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또 하나의 변수를 고려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즉 주부의 취업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린 자녀의 양육, 그리고 가사노동을 적절한 수준으로 해내는 것 등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비록 탁아시설이나 어린이 보육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현재의 시설과 제도로는 문제해결이 불안정한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주부에게 있어 취업은 딜레마이다. 가사노동의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방법에 의해 가사노동을 줄여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가사노동의 잔여부분은 주부의 몫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업주부의 문제는 가정관리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관리학은 가정생활문제의 원인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을 미시적으로 하여 문제의 상황을 개별가정에 머무르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문제해결대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매우 피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이상에서 현대사회의 가정생활을 간략히 다시 정리해 보면, 도시화에 의한 도시생활양식,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친밀과 소원, 경제적 생활향상으로 생활의 질 향상과 함께 소비의 문제 등장,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와 여성의 지위향상, 직업과 병행해야 하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이중역할 부담 등이 두드러진 특징들이다.

이러한 가정생활의 변화에 따라 가정관리학은 자연스럽게 연구대상을 도시의 중산층 핵가족에 맞춰왔다. 이런 과정에서 농촌가정, 빈곤가정, 결손가정, 노인가정 등의 가정생활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핵축화는 가족이기주의라는 가족가치와 결합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가정관리학 역시 연구범위를 미시적으로 개별가정에 제한하다보니 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가정생활을 보는 측면이 미약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이런 점과 관련하여 가정관리학 연구에서 가정철학의 필요성도 논의될 수 있겠다.

한편 현대사회의 가정생활문제는 소비자 문제나, 주부의 취업으로 인한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의 문제 등과 같이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가정관리학은 문제를 사회적으로

있슈화시키거나 사회정책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게 할 채널을 개발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대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치밀한 분석을 거쳐야 하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가정관리학 분야의 이론적 연구를 실제 사회에서 검증해보려는 노력이 부진한 것과도 관련이 된다. 우리는 실용학문이라고 자처하면서 정작 이론적인 연구에 치중했지 연구의 실용성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무언가 대단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미래도 현재의 연속선상에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의 가정생활 또한 지금의 가정생활의 바탕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상의 문제점들은 앞으로의 가정생활을 연구하는 데에 여전히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Ⅲ. 앞으로 다가오는 세기의 가정생활의 특성

1960년대 이후 서구 지식인들 사이에 현대 사회가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앞으로의 사회를 ‘탈경제사회’, ‘지식사회’, ‘기술전자사회’, ‘지구촌’, 등 다양한 용어로서 새로운 사회의 특성을 포착하였다.

‘후기산업사회’라는 용어로 미래를 지칭한 다니엘 벨은 후기산업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의 중심이 제조업으로부터 삶의 질에 관련된 인적, 지적 및 서비스 부문으로 이전되고, 이론적 지식이 사회변동을 주도하고,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직이 급속히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엘빈 토플러는 정보화의 충격을 중심으로 미래의 문명전개를 추정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문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모든 가설에 도전하며, 낯은 생각, 낯은 공식이나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현실의 대응에 유효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새로운 가치관과 기술, 새로운 생활양식의 모습을 드러내 가고 있는 세계는 새로운 발상, 새로운 유추, 새로운 개념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미래학자 나이스 비트는 지구촌의 개념과 관련시켜 앞으로의 생활양식을 언급하였다. 즉 문화적으로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이 출현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징후는 오늘날 총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어 그 가능성에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1c 위원회에서는 21c를 향한 한국사회 변

동의 중심개념으로서 '다원사회', '성숙한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다원사회는 사회 전체의 목표나 성정보다는 개개인의 삶을 보다 중시하며, 다양성이나 조화가 새로운 발전개념으로 부각되는 사회이다(이기춘, 1994 재인용).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가정생활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다. 미래의 가족의 문제와 관련하여 앤소니 기든스(1999)는 민주화된 가족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민주화된 가족의 특징으로서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강조한다.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부부의 별거나 이혼율의 증가 등은 가정의 안정을 위협하고, 자녀들은 편부모 슬하에서 자라나거나 유기되고 있으며, 자녀양육을 맡은 편부모는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기든스는 이혼율을 감소시키자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되 그로 인해 야기되는 자녀양육의 문제를 공동 책임짓는 민주적 가족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민주적 가족의 특성으로서 정서적, 성적 평등, 관계에 있어서 상호 권리와 책임, 평생양육계약, 아이들에 대한 타협적 권위, 부모에 대한 아이들의 책무, 사회적으로 통합된 가족을 들고 있다. 그는 자녀의 공동양육의 강조와 함께 가족관계는 사회생활이라는 더 넓은 구조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가족들이 내향적 자세와 함께 사회로 향한 외향적 시각을 가질 때 비로소 시민적 통합의 효과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앞으로의 미래사회에서의 시민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신용하·장경섭(1996)도 21c 한국가족의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제시하였다. 먼저 부부관계에서의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에서의 평등, 역할분담에서의 평등, 소득처분과 소비에서의 평등, 정서적 융합에서의 평등, 권위에서의 평등, 의사소통에서 평등, 여가활용에 있어서의 평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외에도 부모자녀관계, 조부모손자녀관계, 고부관계, 친족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권위적인 관계나 갈등관계, 소원한 관계에서 벗어나 친밀한 관계, 대화하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 등으로 방향지워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함께 더불어 사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생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미래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바탕으로 21c 가정생활의 변화를 얘기한다면, 가정생활의 질적인 면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개념, 즉 생활의 다원화, 생활의 균형 추구, 가족의 민주화, 탈인간소외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생활의 다원화와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선택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선택의 문제는 산업사회에서 선택의 문제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개성을 강조하는 선택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를테면 결혼을 반드시 하기 보다는 선택의 문제로 간주하면서 결혼하지 않는 독신의 출현도 증가하여 1인 단독가구비율도 증가할 것이며, 결혼하지 않고 동거의 형태만 취하는 사실혼 개념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소비행동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지출을 하되 과거 산업사회에서 보여왔던 모방소비는 지양되고 개인의 욕구에 중점을 둔 소비행태가 나타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상품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릴 것이다. 주거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획일적인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전원주택이나 이동주택 등 다양한 주거 입지의 모색, 개성을 살린 인테리어 디자인, 가족이 원하는 삶의 양식과 제대로 연결되는 주택구조 등에 보다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선택의 문제는 생활을 개성있고 풍요롭게 해주는 반면 선택의 어려움을 가족들이 감수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족들은 생활의 균형을 중요한 가치로 수용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덕목으로 여겨왔던 '효율적, 합리적'의 의미는 다소 희석되어 개인 혹은 가족,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면 생활시간배분에 있어서 무조건 노동시간과 소득만을 중시하기 보다는 적절한 여가시간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며, 소비행동에 있어서도 개인에게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행동을 염두에 둘 것이다. 또한 필요한 물건을 보다 적은 시간을 들여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살 수 있어도 모든 것을 시장에 의존하기 보다는 가족들이 직접 만들어 쓰기도 하는 생활방식이 시도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과의 공존 의식이 더욱 고취될 것으로 보인다.

세번 째로 가족의 민주화 추세이다. 이것은 가족의 자율과 평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가부장제적 가치 혹은 가족제도 속에서 남성과 여성, 부모와 자녀간의 불평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적어도 앞으로 다가오는 세기에는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남녀간 역할공유가 이루어지면서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갈등은 일차적으로 가족들의 지원을 통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산업화의 진행은 핵가족화, 관료주의화, 물질만능 등 사회의 가치나 제도

속에서 현대인은 소외되면서 많은 산업화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해 최근 시민 공동체의 결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간의 결속, 자원봉사, 공적부문에의 시민참여연대, 환경친화적 행동 등, 앞으로 가족들은 관심의 범위를 내 가족에만 두는 가족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에 눈을 돌리는 방향으로, 즉 가족도 외향적인 시각을 갖고 사회와의 통합성을 꾀하려고 할 것이다.

IV. 가정관리학 분야의 연구 과제

가정생활의 변화는 가정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가정관리학의 연구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다가올 세기의 생활의 질적 변화에 대한 예측은 앞으로의 가정관리의 연구방향에 시사점을 준다.

우선 지금까지 도시의 핵가족을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했다면 다원화되는 사회에서의 가정관리학의 연구대상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도시가정과 농촌가정, 핵가족과 3세대 가족, 그리고 1인 단독가족, 노인가정, 편부모 가정, 동거인 가정(?), 비혈연 공동체 가정, 중산층 가정과 빈곤층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가정관리문제(가족 및 친족관계, 가사노동 및 자원활용, 가계재정운영, 주거, 사회와의 유대 등)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인 단독가정이나 노인가정, 빈곤가정 등의 증가는 기존의 가정관리연구의 외연을 확대해야만 되는 부분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생활운영방식이 일반적인 핵가족의 형태와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 이를테면 노인가정은 단순히 생활의 자립단위로 간주할 수 없고, 사회적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대한 연구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사회정책 부분까지도 연구의 범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의 생활에서는 자신 및 가족의 욕구를 발견하여 개성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며, 그와 함께 선택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될 것이다. 어떻게 개성을 표현할 것인가? 삶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가족의 가치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택의 문제는 곧 가치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원화 사회에서 생활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

정경영철학 부분도 사회변화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가정관리연구에서 강조되었던 효율성과 합리성은 가족의 효율성과 합리성이었다. 즉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 환경은 곧 가족의 삶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가정관리연구에서 가정경영철학은 효율성과 합리성에 초점을 맞춘 '가정관리 잘하기', 뿐만 아니라 '가정관리 바람직하게 하기'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관리학의 학문적 과제는 가정생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정생활문제를 발견하여 개선시키는 데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정관리학은 가정생활문제를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인식하되 문제의 해결은 중국적으로 가족에게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다. 가정관리연구에서는 앞으로의 가정생활문제를 어떤 맥락에서 보아야 하고 그 해결 또한 어떤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앞으로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정생활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사회에서 가정생활은 크게 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분명 필요한 작업이다. 가정관리학은 필요한 학문이다. 그러나 최근 가정관리학의 학문으로서의 실용성 문제가 가정관리 연구자들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실용학문으로서의 가정관리학의 실천성 결여와 관련하여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 하나는 가정관리학이 세부영역으로 나뉘면서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데 주력한 나머지 이론적 지식을 실생활에서 검증해 보려는 노력은 등한시한 점(서선희 외, 1995; 노영주, 1999)이며, 또 하나는 연구방법적 측면에서 경험적 실증주의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우리의 연구가 실제의 가정생활을 다 담아내지 못하였고 또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너무 소극적으로 함으로써 문제해결중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공인숙 외, 1996)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실용적 학문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관리학 세부영역의 통합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전문성과 통합성 양자택일만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두 특성이 하나의 개념 즉 가정복지라는 개념으로 녹여낼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입장은 가정관리학의 세부영역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각각의 전문영역으로 두면서 이외에 실천영역을 새로이 두어 이들의 전문적 지식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면서 통합성을 꾀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본 연구에

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간단히 의견만을 제시하였음.). 또한 연구 방법에서도 질적 접근의 한 방법으로서 일상생활 접근이 제안되었다(공인숙, 1996).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은 어디까지나 연구자가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보조적 수단임에 불과하다.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연구자이다(홍두승, 1984). 앞으로의 가정관리학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명심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V. 맺는 말

다가올 세기의 사회 변화의 전반적인 추세와 그 방향은 다원화, 정보화 사회 등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정생활도 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방향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가족들의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동시에 다양한 선택에 접하게 함으로써 가족들은 갈등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곧 미래의 가정관리학은 연구 과제이다.

학문은 실제생활과 유리될 수 없다. 실천학문의 경우 그 관계는 더욱 확고하다. 따라서 가정관리학의 학문적 출발은 변화하는 실제생활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가정관리학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 이 점은 가정관리학이 여러 세부학문으로 나뉘고 각각 이론적 축적에 주력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과정은 하나의 학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요과정인지도 모른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기에는 보다 성숙한 학문으로서 가정관리학이 전개돼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한 기초는 변화하는 실제생활을 담아내는 학문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범위가 실제생활에 입각해 있어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또한 미시적-거시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공인숙 외6(1996). 기술에서 과학으로 ; 과학에서 인간으로.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 대한가정학회.
2. 노영주 외3(1999). '가정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재개념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173-183.
3. 서선희, 고영희, 옥경희(1995). 가정관리학의 방향과 교과과정 개발연구; 통합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15-24.
4. 송혜림 외4(1999). 21세기 가정복지의 지향과 사회적 실천. 제25차 학술대회 자료, 한국가정관리학회.
5. 신용하, 장경섭(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 문화, 지식산업사.
6. 앤소니 기든스 저, 한상진, 박찬욱 역(1999).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7. 이기춘(1994). 미래사회와 가정학. 21세기를 향한 가정학의 발전방향.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교수 세미나 발표 자료, 1-16.
8. 홍두승(1984). 가정학 연구의 방법론적 과제, 대한가정학회지 22(4): 193-194.
9. 한국여성개발원(1997). 1997 여성통계연보.

가정정보화와 가정관리학의 과제

채 옥 희 (원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I. 들어가는 말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용하는 정보의 양이나 질은 비약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21세기에는 가정의 정보화시대의 패도에 오르게 되므로 생활수단의 획득과 소비의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보가 우리의 생활을 둘러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Toffler(1981)는 21세기에는 보다 많은 고도의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유효하게 만드는 개인, 가족만이 보다 풍요로운 가정생활에서의 욕구를 실현하게 된다고 한다. 1984년 제15회 국제가정학회 오슬로우 회의에서 정보화의 진전이 생활의 질 향상에 어떻게 공헌하는가? 정보화의 진전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등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우리 나라 가정학회에서도 1994년 “미래사회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홈오토메이션과 가정생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한편 1995년 정부가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제정하고 1996년에는 이 법에 의거하여 국민생산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선언을 발표한 후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불가피한 현실로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려는 움직임이 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학에서는 정보화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정보화사회에서 가정이 어떻게 적응해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가족원들은 정보 기기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센터(1997)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일반국민의 13.7%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시간도 가정에서 50분, 직장이나 학교에서 32분이라고 한다. 컴퓨터가 가구의 하나로 될 만큼 가정생활에 침투해 들어오고 초고속정보망이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정보화사회에서 가족원의 욕구와 자원의 변화는 가족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환경이 급속히 변모해 가는 정보화 사회의 사회적 현실에 적절하게 대처해서 가족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보화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이로운 점과 불합리한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래에 다가 올 고도정보화 사회는 물론 오늘날의 정보화사회 속에서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려는 자세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정보화가 가정생활의 만족과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가정학 분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정 정보화에 대한 가정생활의 변화 및 정보화가 가정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21세기의 가정관리학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정보화사회와 가정생활

정보화 사회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사회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다종 다양성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벨(Daniel Bell)이 주장한 공업화 이후의 사회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탈공업화 사회, 탈 대량 소비사회라고 말하는 것으로 종래의 재화를 중심으로 하던 사회와는 달리 정보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를 정보 사회(information society)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한국과학기술원(1992)이나 한국정보전산원(1993, 1994, 1995, 1996)등은 사회경제지표의 관점에서 정보사회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정보처리 및 통신을 위한 설비로 구성된 정보하부구조이며, 이와 같은 정보설비를 이용하여 사회구성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고, 싸고, 효율적으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보화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국민생활정보화인식 조사에서도 정보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컴퓨터가 26.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인터넷 6.7%, PC통신 6.5%순으로 나타나 정보화는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이라는 인식이 다수의 이미지라고 하였다.(한국정보문화센터, 1996)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보화 사회에서 가정생활의 정보화는 가정의 모든 기기와 컴퓨터 등 초고속정보망을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며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정보화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렇듯 정보화라는 개념의 이해는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가지 공통된 견해는 다가올 미래사회는 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질 것

이라는 점이다.

정보화와 가정경영에 대한 관심을 정보사회의 어떤 특성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과 정보매체의 사용으로 기존의 가족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되는 가족문화와 실제 가정경영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다.

첫째, 정보화에 따른 변화는 가족생활의 가치관의 변화와 생활양식의 변화이다.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의 사고는 이미 핵가족 중심으로 바뀐지 오래이며 최근에는 독신자가족, 주말가족, 딥크(DINK, double income no kids) 등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서 가족에 대한 사고가 무척 유연해졌다. 외국에서는 동성가족이나 계약가족과 같은 새로운 가족도 출현하고 있으며 가족의 기능을 대체, 보완해주는 공공가정의 등장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족문화와 실제 가정경영과의 관련에 대한 관심이다.

현대를 정보화사회 또는 미디어사회라고 말하는 가운데 영상미디어인 텔레비전은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떼어낼 수 없듯이, 새로운 미디어 혁명의 진행이라고 부르는 전자미디어인 인터넷, 휴대폰 등의 등장은 우리들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처럼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는 일반가정은 퍼스널 컴퓨터의 보급률이 오늘날의 전화 보급률에 육박할 것이며, 비디오 텍스 등을 통하여 의료, 교육, 복지, 가정관리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고도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진전은 정보의 존재형태, 유통형태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우리들의 생활이나 사회시스템을 변화시켜 간다.

오늘날은 정보혁신의 시대로서 정보의 전달수단이 컴퓨터와 전기통신의 융합에 따라 정보서비스의 방향과 내용은 다양화해 간다. 즉 컴퓨터를 매체로 하는 정보화사회의 등장은 노동시간의 유연화, 일자리의 공유, 원거리 통신을 통한 노동양식의 변화와 함께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 등 가정과 직장의 융합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성별분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컴퓨터의 가정내 보급은 가사노동에서 아내가 하는 일과 남편이 하는 일,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일 등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으로 전자상거래에서도 여성의 네티즌이 늘어나면서 사이버쇼핑몰 진열상품과 마케팅전략이 여성취향으로 바뀌고 있다.(동아일보, 1999. 8. 5)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소비양식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쇼핑을 둘러싼 성별분업, 세대간의 분업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 가족원이나 부부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성들의 가정내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도 있다. 남자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남자들의 감성구조도 가정적이고 섬세하며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쓸 줄 아는 새로운 남편상이 정보사회가정의 이상형으로 부각되는 반면 여성들은 가정관리, 사무직 노동자인 동시에 성적인 매력도 지닌 새로운 가정주부가 환영받을 것이다.(조은, 1998) 이러한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미디어의 특징은 비전자형에서 전자형, 개성형에서 통합형, 일방형에서 쌍방향통신으로 변화하여 가정생활관리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가정을 위한 정보통신기반이 급속하게 정비되고 있고 저가의 퍼스날 컴퓨터와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확산되면서 21세기 가정의 정보화수준은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다. 홈뱅킹, 홈쇼핑, 재택학습, 재택행정서비스 등 가정내의 경제활동, 교육, 문화생활이 오늘날의 사회와는 상당히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가정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가정학에서도 이에 대처하는 가정 정보화의 양적, 질적 지표의 설정과 정보화에 따른 생활변화를 예측함으로써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밝혀 낼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정보화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축출함과 동시에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생활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가정학에서도 이에 대처하는 정보활용능력의 육성을 제기하고 있다.(福留美奈子, 1999)

김기옥(1999)도 개인과 가족이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잘 적응하여 정보화의 혜택을 생활 속에서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교육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과 개인의 인지, 태도, 가치관, 행동 및 생활전반이 새로운 정보환경의 변화와 상호조화를 이룰 때 이상적인 정보사회 실현은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다.

Ⅲ. 가정 정보화의 효용과 문제점

1. 가정 정보화의 요구와 효용

가정생활은 다종다량의 정보를 이용하면서 운영된다. 정보는 인간과의 대면접촉 또

는 전화 등의 개인적인 미디어에 의해서 얻어지기도 하지만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이 나, 잡지 등의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얻어지기도 한다. 컴퓨터와 전기통신의 결합에 의한 매체에 의해서 우리들이 이용하는 정보의 양이나 질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 정보화 사회에서 가정의 영역은 새롭게 개념화될 필요가 있다.

정보화의 물결은 이미 우리들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Personal Communication수단인 전화의 가입대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이 되어 외부세계와 가족을 연결시키는 쌍방향 대화를 이룩하는 도구라면 컴퓨터는 개인과 외부세계를 문자로 연결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가정용 컴퓨터는 이미 세금의 계산, 가정내 에너지 소비량의 점검, 조리법의 기억 등 가정내의 여러 가지 일에 활용되고 있으며, 성능좋은 타자기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컴퓨터가 가진 능력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마이크로 컴퓨터는 가정내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로 줄이는 일, 세탁기의 세제의 양이나 수온의 가감, 자동차 연료의 조정 및 수리의 필요성 여부를 진단한다. 또한 기계가 부착된 라디오, 토스터, 커피포트, 샤워에도 사용되고 있다. 그 밖의 차고의 출입문을 열고 잠그는 일 등 마이크로 컴퓨터의 역할은 중요한 일에서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처리한다. 그러나 가정의 정보화에 대해서 가정관리자인 주부들의 반응은 아직도 요원한 꿈나라의 이야기쯤으로 생각하는 주부가 많이 있다. 이는 가사의 자동화나 홈쇼핑(Home shopping), 홈뱅킹(Home Banking), 재택근무 등 주부의 가사노동 간소화와 합리화가 아직도 추상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의 구체적인 실체를 체험하거나 효과로 판단될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정보의 수단은 텔레비전과 라디오이다. 남성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이 많은데 여성은 친구, 가족 등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정보원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 우먼파워가 거세진다는 것이다. 즉 PC통신 천리안의 경우 93년 여성참여비율이 12%였으나 계속증가하여 98년에는 32%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동아일보. 1999. 8. 5)

우리 나라의 일반 국민들은 정보를 주로 신문, 라디오, TV를 이용하거나(95.3%), 이웃이나 친구, 가족을 통해서(66.7%), 전문서적이거나 간행물을 통해(21.3%) 얻고 있었고,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약 7.2%라고 한다.(손연기외 2인, 1997)

조혜정(1990)은 가정생활영역별 가정관리 정보 요구도에서 자녀양육이나 보호에서 가장 높은 요구를 보이며 다음이 식생활, 보건위생, 미용 가족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생활이나 주생활 등 가정경제에서는 요구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가정생활에서 요구되고 활용되고 있는 정보의 비율이 낮은 것은 정보의 질이나 내용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지 않거나 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사용자의 선택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것들이며 중요한 것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정보의 입수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정에 대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정보요구에서 소비자가 이용해보고 싶은 서비스로서 집에서 점진, 가정간호가 63%, Tele Control경비가 52%, 가정예약이 46%, Home shopping과 Home Banking이 32%로 되고 있다.(小澤紀美子, 1985)

우리 나라에서도 컴퓨터나 전화로 송금하는 것에 대한 지지도는 84.2%로 매우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 PC통신이나 인터넷 쇼핑에 대한 지지도는 62.9%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손연기의 2인, 1997)

한백연구재단(1996)의 조사에서 여성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해야하는 정보분야는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인 재택크, 금융관련정보와 취업정보 그리고 교육이나 보육정보에 대한요구와 문화생활요구는 큰 편이고 패션정보, 성생활정보, 다이어트정보는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한다.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좋지 않은 점에 대한 조사에서 편리하고 시간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경우는 각각 58%와 40% 이상이며 사람과의 접촉이 없게되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경우는 각각 35%를 상회하고 있다.(茂木信明, 1984)

우리 나라의 실태조사에서도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날 생활변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생산성향상(80.0%), 행정서비스(76.9%), 국민의 알 권리 신장(68.2%), 교통체증 완화(57.5%), 노동강도약화(53.1%)등에서는 낙관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반면, 사생활 침해(67.0%), 일자리감소(66.1%), 계층격차심화(48.9%), 학습부담강화(47.7%) 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김기훈외 2인, 1996)

정보화에 따른 생활편리에 해당하는 온라인 투표, 화상진료, 영상재판, 재택수업, 재택근무 등에 대한 지지정도가 50%를 넘었고, 특히 재택근무에 대한 지지도는 69.5%로 높았다. 정보화에 따른 생활편리에 대한 지지정도를 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이 낮

을수록, 학력별로는 대학생이나 중학생이 높고, 소득에서는 200-400만원인 사람들이 수용도가 높았다.(손연기의 2인, 1997)

이와 같이 가정의 정보화는 생활의 편리성이나 생활의 질을 기대하는 반면, 인간성의 상실, 기기에 대한 저항감, 경비의 부담감 등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의 진전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정보통신 서비스의 적용범위와 한계를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의 정보는 가정생활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중요하다. 가정생활의 목적이 생활의 합리화와 건강, 안전, 생활의 여유와 가족원의 화합이라고 할 때 정보서비스 항목과 정보 효용과의 관계를 나타낸 표는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정보통신서비스와 그의 효용 및 가정경영생활목표와의 관련

번호	서비스 항목	효 용	생활의 목표	비 고
1	House Control (식단검색포함)	노동시간 절약	A	A: 생활의 합리화 B: 건강·안전 C: 생활의 여유 D: 가족원의 화목
2	에너지 관리 (Tele Control)	소비지출절감 (가계의 합리적인 운영)	A	
3	Security	안전의 확보 (생명, 재산)	B	
4	가계관리 (Home Sopping, Home Banking)	소득의 증대	A	
5	예약	시간절약	C	
6	건강관리	건강의 유지, 증진 (육체, 정신)	B	
7	재택근무	선택범위확대	C	
8	재택학습			
9	오락	시간의 주체적 활용	C	
10	감상·창작활동	사회참가	D	
11	Communication	능력개발/자기개발 (개성개발)	C	
12	상담 (프라이버시 배려를 요하는 것)	즐거움의 증대	D	
13	지역봉사	만남의 증대 (연대감의 육성)	D	

*출처, 中原秀珂의, 1994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보화가 가정생활에 주는 효용은 첫째, 편리성의향상과 노동절감이며, 에너지절약이나 안전성의 감시와 인지 등 선택범위가 다양하고 학습 기회가 확대되며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홈오토메이션은 가정관리시스템, 가사관리시스템, 문화시스템, 통신시스템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사관리시스템의 분야인 가계관리시스템, 홈뱅킹, 건강관리, 컨설팅 일정 관리 등은 21세기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기원, 1994)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전자기기의 디지털화, 정보통신분야의 기술 및 서비스 발전에 따라 가정내 전자 기기를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하려는 홈 네트워크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는 홈뱅킹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본격적인 생활정보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가정, 기업, 행정이 서로 디지털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는 본격적인 네트워크사회로 돌입하는 시점에 와 있다.

2. 가정 정보화에 따른 가정경영상의 문제점

주부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 주부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공포 등으로 더 이상의 편리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즉 정보화가 진전되면 가정은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쉽게 받으며, 가정내에서는 전통적 권위가 흐트러지기 쉽고, 가정외부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기 쉬우므로 더이상의 정보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今井光映, 1985)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결혼도 하고 가족을 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혼개념의 변화가 오고 직접 만나는 일없이 가상공간에서 부부생활을 하는 사이버 부부도 가능하므로 현실의 가족규범이나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조은, 1998)

손연기 외 2인(1997)도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침해, 지적 재산권 침해, 대인 접촉기회의 감소와 비인간화,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외설물의 범람, 생활양식의 급속한 변화에 의한 가치관의 혼란 등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70%이상이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보화가 진전되면 정보기기 시스템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이른바 테크노스트레스가 생겨 이것은 여러 가지 심신장애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 또 사람들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과만을 입수하기 때문에 편리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생활을 자신이 제어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늘어난다. 정보기기 시스템에 대한 의존성, 정보 범람으로 생기는

불안감과 초조감이 커질 염려가 있다.(福留美奈子, 1999)

고도 정보화가 진전되면 재택근무를 포함하여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크게 바뀔 것이며 여성, 노인층, 장애자들이 새로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나 기기와의 접촉으로 인간과의 대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외감을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세대간의 정보격차로 가족원간의 갈등과 소외를 야기 시킬 수 있다.

N세대라고 일컬어지는 13-20세의 53%는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학생중 43%가 하루 1시간이상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게임(86%) 다음으로 통신(56%)에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정보화의 첨병 계층을 이루고 있다. 21세기의 주역이 될 이들은 가족공동체보다는 가상공동체에서 생활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중앙일보, 1998. 11. 12)

한편 가정관리의 자동화 기기화에 따라 가족원의 독립공간이 보장됨에 따라 휴대폰, TV, 음향기기등 전통적으로 가족공유로 인식되었던 생활기기들이 모두 개인소유화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가정정보화가 이루어지므로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가정생활경영적인 측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량 증대로서 대량의 정보가 흘러오고 있는 가운데서 그러한 정보에 매몰되어 버리거나 알고 있는 정보에만 의존하는 사람이 증대해 갈 것이다. 신문, 잡지와는 달리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특정의 적은 영역의 정보로 판단하므로 창조적 사고가 결여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정보의 질이 평가되지 않고 사용될 때 불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람도 증대될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시스템의 가정내에 있는 단말기와의 접촉이 증대해가면 인간과의 접촉을 회피하려고 하는 인간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기기시스템의 접촉에 의해 젊은 연령층에서는 저항이 없지만 중년의 고령자는 적용되지 않아서 불안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한편,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 등으로 불쾌감을 주며 공중도덕을 흐트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정보이용의 세대간 격차로 가족원간의 갈등과 소외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

셋째, 가정의 정보화가 사회시스템과의 관계가 깊게 되므로 잘못 작동하거나 정전 등의 적은 사고에도 큰 재해, 혼란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고장시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성,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정... (Handwritten notes and scribbles at the top of the page)

적절한 기기를 도입하여 정보통신의 창조적 활용능력을 기를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기원(1994). 미래사회와 가정. 대한가정학회 세계 가정의 해 기념 학술대회.
2. 김기욱(1999). 정보사회와 생활과학.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3. 김기훈 외 2(1996). 국민생활정보화 의식 및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 센터.
4. 서규환 역(1993). 정보화사회와 문화의 미래. 다니엘. 벨, 「The Winding Passage, -Essays and Sociological Journeys」. 도서출판 디자인하우스.
5. 손연기 외 2(1997). 정보사회인식 및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센터.
6. 송병락(1986). "정보화 사회와 경제". 정보화 사회. 사회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출판부.
7. 전석호(1997). 정보사회론: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뉴미디어. 나남출판.
8. 조동기 역(1997). 정보사회이론. 나남.
9. 조 은(1998). "정보화와 가족생활의 변화". 정보화로 가는 길 13(1). 한국정보문화 센터.
10. 조혜정(1990). 가정관리행동과 가정관리 정보요구도 및 정보 노출도와의 관계 분석. 목포대학교 논문집 11(1):93-99.
11. 현원복(1988). "고도정보사회와 뉴미디어" 동아원색 세계 대백과사전. 보유편, 동아 출판사.
12. 채옥희(1996). 신 가정학원론. 서울, 경춘사.
13. 최동수(1997). 정보사회론. 법문사.
14. 최두진(1998). "선진국의 가정정보화 동향" 정보화로 가는 길 13(5). 한국정보문화센터
15. Machlup, F.(1962) The Promo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NCA(한국전산원) 1993에서 재인용.
16. A.Toffler(1990). Power shift-Knowledge, Wealth, and Violence at the Edge of 21st century. 이계행 역(1991). 권력이동. 한국경제신문사.
17. 今井光映 外 2(1985). 現代 家庭經營學. 東京, 枳草書房.

18. 茂木信明(1984). “情報化社會”. 家庭科教育, 家政教育社, 20.
19. 中原秀樹 外 4(1994). 生活と情報. 東京.建帛社, 36-39.
20. 村尾勇之(1997). 生活經營學. 東京, 家政教育社, 145-159.
21. 水野博介(1996). 變わるメディアと社會生活. 東京ミネルァ書房.
22. 梅倬忠夫(1989). 情報の家政學. 東京. ドメス出版.
23. 今井光暎.山口久子(1991). 生活學으로서 家政學. 東京, 有斐閣, 112-138.
24. 小澤紀美子(1985). “情報化社會와 家庭經營.”現代家庭經營學. 東京, 枳草書房.
25. 福留美奈子(1999). 情報化. 미디어社會와 家庭科教育(1). 家庭科教育73(6).